山寺서 SNS전법을… 뉴미디어 포교 박차

조계종 포교원, 신년기자회견서 7대 과제 제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경기지역 청소년 중 불자가 20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는 비상한 각오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교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행혁신을 확산하고 미래세대로 전법 포교활동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뉴미디어 전법 포교와 청년 포교 등 불교 미래 개척에 앞장선다. 포교원은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8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책과제를 밝혔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향해 대중이 함께 실천해야 한다. '신행혁신 붓다로 살자'를 우리 삶의 영역에서부터 사회 제반영역으로 확대하고, 중장년에서 미래세대로 활동범위를 확장해 내일을 꽃피우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이 밝힌 주요과제는 △신행혁신 대중화 △지역포교 활성화 △포교콘텐츠 개발 △뉴미디어 포교기반 구축 △신도종책 개선 △총무원 교육원과 협력 강화 △포교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크게 신행혁신운동 및 지역포교 활성화와 미래세대·뉴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포교전략으로 요약된다.

신행혁신운동 V2.0 전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포교원이 추진하는 신행혁신운동의 대중화다. 포교원은 올해 사부대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신행혁신 캠페인을 교계 방송 및 언론 매체와 함께 진행한다. 또 신행혁신 지침과 일지, 자료를 사찰이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공유한다.

이와 함께 123개 전법중심도량과 140개 불교대학에서도 신행혁신운동이 펼쳐진다. 지역별 지도자 간담회와 전법중심도량 공통신행·공익활동 등이 선정되며, 3월 포교사의날에는 포교사단과 함께 신행혁신 및 공동실천을 선포하고 전국 지역단과 추진한다.

'뉴미디어' '청년' 맞춤형 전법

불교 교세 회복을 위한 미래 세대 맞춤형 포교도 진행된다. 먼저 청년 대학생이 참가하는 신행축제가 열린다. 한글 신행의례 경연대회, UCC공모전 및 발표회, '절오빠 절언니' 토크콘서트 등 청년들의 고민과 관심을 공유하고, 종교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장이 마련된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가운데)과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왼쪽), 포교부장 가섭 스님이 올해 포교종책을 설명하고 있다.

언론매체와 신행혁신 캠페인
신행일지·자료 온라인 공유
포교사단과 공동실천 계획도

앱 개발, 포교 콘텐츠 보급
대중공사로 포교지표 조사

특히 청년세대들의 접근성이 높은 SNS를 비롯한 뉴미디어 포교기반 구축도 추진된다. 포교원은 포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함과 동시에 스님 법문영상 온라인 제공 등 포교콘텐츠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포교신도단체 소통 채널인 '모바일 도서관'을 개발하며 각종 포교 전법 소식 및 정보를 공유한다.

포교원은 종책개발 연찬회를 열고 뉴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종단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사찰의 신도들이 SNS 등에 익숙지 않은 점을 고려해 스님과 포교사, 각 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SNS활용 포교방법을 교육한다. 또 불자 웹툰작가, 동화작가 등 문화콘텐츠 창작가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불교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회도 제공된다.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뉴미디어 분야는 포교에서 강화돼야 하는 분야"라며 "기반 조성을 위해 첫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인프라 구축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곳곳서 '포교' 물결 만든다

2017년 호남지역을 시작으로 진행된 신행혁신 지역대중공사는 수도권 불교 활성화를 위한 서울지역 대중공사, 부산지역 대중공사, 대전지역 대중공사 등으로 이어진다. 또 10개 지역의 포교지표 조사도 이뤄져 공유된다.

각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포교콘텐츠 제작에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현재 각광받고 있는 불교인성교육과 불교 수행의 접합점이 모색된다. 올해 3~5월까지 '불교 전통수행을 활용한 인성프로그램'을 공모할 예정이다.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안내서도 마련된다. 불자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제시하는 '불자의 길'이 5월 중 발간되며 계율, 명상, 보살행 등에 대한 신행안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행의례도 개발된다.

3院 협력 '크로스오버'

포교 분야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교육·수행·실천이 함께 증장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은 총무원·교육원과 3원 협력을 강화해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총무원장 설정스님을 위원장으로 교육원·포교원·중앙종회·교구본사가 참여하는 '불교성전 및 불교사회교리서 편찬위'를 구성해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한다. 불교성전은 불자들이 손쉽게 갖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경전이며 사회적 의제에 대한 사회교리도 함께 편찬된다.

또 총무원과 연계해 사찰 인사고과에 포교항목을 반영한다. 교육원과는 승가대학 교과목에 포교개론을 반영하며, 포교 프레젠테이션 승가 공모전 등도 함께 진행한다. 포교아사리제도 신설해 사찰 종사자와 학인스님들에게 전법 방법론을 교육하는 인재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홍 스님은 "교육원, 포교원, 문화부, 사회부 등 각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 연대가 처음부터 잘 돼야 한다"며 "사찰 행정과 포교가 분리돼서는 안 되기에 총무원, 교육원뿐만 아니라 교구본사, 각 사찰과의 연계활동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끝으로 "올해 포교원은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신행혁신으로 불교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자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선학원 이사회 "법진 스님 성추행 아냐"

진상조사위원장 철오 스님 "2심 공정한 판결 기대"

'여직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어 1심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선학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성추행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학원 기관지 〈불교저널〉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장 철오 스님은 1월 25일 서울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학원 정기이사회서 "법정 증인 심문 등에서 조계종 고위층의 다각적 개입과 고소인의 기억 왜곡에 대해 확인해 성추행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증거들이 전면 배제된 것에 대해 2심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1월 11일 "피고(법진 스님) 입장과 달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과 전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선학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철오 스님에게 전화했으나 기자임을 밝히자 스님은 곧바로 전화를 끊고 더 이상 받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선미모)'은 선학원 이사회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예고했다. 선미모는 "선학원 정상화 촉구 공문을 이사회 임원들에게 보냈다. 2월 14일까지 답신이 없을 경우 이사회 직무정지 가처분 법률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선미모는 공문에서 △법진 스님의 일체 공직 사퇴 △이사회 혁신방안 제시 △전국분원장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윤호섭 기자

연수교육, '전법·실천' 중심으로 전환

조계종 교육원, 2018년도 연수 계획 발표

조계종 연수 교육 프로그램이 전법과 실천행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3월 7일부터 '종단리더십실무과정 1차'를 시작으로 올해 연수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원 연수프로그램은 전법과 실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처음 시행되는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다. 스님들의 전법교화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된 이 프로그램은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불교를 전하는 활동에 대해 연수교육으로 인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스님들의 자비행 독려·고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연수도 185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교육원은 "승가결사체 전법활동 연수는 스님들이 전법교화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이는 승려 연수가 정보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자비보살행의 실천으로 그 패러다임이 이동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웹 환경에 맞춘 '모바일 전용 연수교육 사이트'를 개설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조계종 스님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연수교육을 신청,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결사체 전법활동 연수 도입
모바일 연수 사이트 개설도
자원봉사, 185개 기관 확대

강좌형, 체험형, 순례형 연수 프로그램들은 스님들이 전법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 교육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교육원은 법계과정 11개, 사찰경영과정 4개, 경전과정 5개, 인문사회과정 7개, 체험과정 5개, 순례과정 8개(국내 3곳, 해외 5곳) 등 총 40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특히 새로 편성된 △현대인을 위한 선지도 방법론 △우리 역사 속 위기 극복 리더십 △4차 산업혁명과 불교 △스님들도 몰랐던 사찰 문화재 이야기 △설법과 스피치의 모든 것 △사경으로 신행지도하기 △중국 차문화 기행 △이집트·요르단·이스라엘 문명기행 등 13개 강좌들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스님들의 전법교화 역량 향상을 위해 모든 법계과정에 '불교음악' '우리말 불교의례' '호스피스' 등을 배치했다. 특별과정으로 종사·명덕(승랍 30년 이상) 법계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지도자최고위특별과정'을 신설했다. 올해는 제주지역의 불교를 탐방함으로써 제주 불교의 역사를 관찰해 보고자 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신흥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3월 8일

후보등록 2월 12~14일

속초 신흥사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금곡 스님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가 오는 3월 8일 열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35차 회의를 열고,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12일부터 14일이며,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서 선거법 제1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입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서, 수행이력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2월 21일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하며, 3월 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거는 3월 8일 신흥사서 진행되며 단독 입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조실 경하당 현성 대선사 영결식 봉행에 대한 感謝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월 20일 圓寂에 드신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조실 현성대선사의 영결식을 1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에서 청담문도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길에 조문해 주시고 직접 찾아와 큰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스님들과 제방의 스님, 사부대중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불교 발전과 도선사 중창을 위해 진력하신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추모재 안내

■ 초재 : 1월 26일 (금) 오전 10시 서울 현성정사 02)352-5405	■ 5재 : 2월 23일 (금) 오전 10시 서울 능인선원 02)577-5800
■ 2재 : 2월 2일 (금) 오전 10시 고성 옥천사 055)672-0100	■ 6재 : 3월 2일 (금) 오전 10시 부산 미타선원 051)253-8687
■ 3재 : 2월 9일 (금) 오전 10시 부산 내원정사 051)242-0691	■ 49재 : 3월 9일 (금) 오전 10시 서울 도선사 02)993-3161
■ 4재 : 2월 16일 (금) 오전 10시 서울 현성정사 02)352-5405	

불기 2562년 1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조실 경하당 현성대선사 문도회 합장
상좌 지광·종성·마가·종호 두손모음